

[국어] 기출 문제 해설

2017년 10월 21일 9급 국가직

01. 밑줄 친 단어의 쓰임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ㄱ. 근방 비가 올 것처럼 하늘이 어둡다.
↳ 할머니는 방금 전에 난 소리에 깜짝 놀라셨다.
- ② ㄱ. 그는 근본이 미천하여 남들의 업신여김을 받았다.
↳ 자발적 참여자를 근간으로 하여 조직이 결성되었다.
- ③ ㄱ. 친구들에게 그는 완전히 타락한 사람으로 알려졌다.
↳ 그는 역모 사건에 휘말려 몰락한 집안의 자손이었다.
- ④ ㄱ. 비가 올 때에는 순회공연을 지연하기로 하였다.
↳ 시험 시작 날짜가 9월 5일에서 9월 7일로 연장되었다.

해설

- ④ ‘순회공연을 취소(取消: 취할 취, 사라질 소)’, ‘시험 날짜 연기(延期: 늘일 연, 기약할 기)’가 적절하다.
▶지연(遲延: 더딜 지, 늘일 연)-무슨 일을 더디게 끌어 시간을 늦춤. 또는 시간이 늦추어짐. [예] 출발 시간의 지연/기술 개발의 지연으로 산업 발전에 많은 차질을 빚고 있다.
▶연장(延長: 늘일 연, 길 장)-시간이나 거리 따위를 본래보다 길게 늘림. [예] 연장 공연/연장 근무/생명의 연장/평균 수명의 연장에 따라, 노년층의 인구가 증가되었다./마을버스 노선을 연장 운행하였다.
- ① ▶방금: 말하고 있는 시점과 같은 때에(=방금)
▶방금: 다음과 같이 여러 의미가 있다.
① **말하고 있는 시점(時點)보다 바로 조금 전.** [예] 방금 전에 난 소리/나는 그 소식을 방금에야 들었다./방금도 말했듯이 나는 이 일에 아무 관련이 없다./방금까지 옆에 있던 사람이 사라졌다.
② **말하고 있는 시점과 같은 때.** [예] 방금도 비행기가 폭음을 내며 날아가고 있다./그 나쁜 열매는 방금의 이 땅을 덮고 있는 재난과 비참으로 여겨졌다.
③ **말하고 있는 시점부터 바로 조금 후.** [예] 한 개 남은 이마저 방금이라도 빠질 듯이 흔들흔들한다.
- ② ▶근본(根本): 사물의 본질이나 본바탕. [예] 근본 원칙/우리 경제가 불황 상태에 있는 것이 주가 하락의 근본 원인이다.
▶근간(根幹): ① 뿌리와 줄기를 아울러 이르는 말. [예] 호두나무 아름드리 근간을 내 손으로 베었다. ② 사물의 바탕이나 중심이 되는 중요한 것. [예] 국가의 근간 사업/근간을 이루다.
- ③ ▶타락(墮落):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잘못된 길로 빠지는 일. [예] 타락 선거/타락의 길을 걷다/신유년에서 임술년에 걸쳐서 정치의 타락은 극도에 달하였다.
▶몰락(沒落): ① 재물이나 세력 따위가 쇠하여 보잘것없이 됨. [예] 경제적 몰락. ② 멸망하여 모조리 없어짐. [예] 로마 제국의 몰락

▶정답: ④

02. 띄어쓰기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물어도 보았다.
- ② 매일같이 지각하던 김 선생이 직장을 그만두었다.

- ③ 이번 시험에서 우리 중 안 되어도 세 명은 합격할 듯하다.
- ④ 지난주에 발생한 사고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회의를 했다.

해설

- ③ →안되어도
▶안되다[동사]: ① 일, 현상, 물건 따위가 좋게 이루어지지 않다. [예] 올해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과일 농사가 안돼 큰일이다./공부가 안돼서 잠깐 쉬고 있다. ② 사람이 훌륭하게 되지 못하다. [예] 자식이 안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다. ③ 일정한 수준이나 정도에 이르지 못하다. [예] 이번 시험에서 우리 중 안되어도 세 명은 합격할 것 같다.
▶안/되다: 부정문 [예] 일이 안/되다. 시간이 아직 안/되었구나.
① ‘물어도√보았다’는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결합이지만 앞말에 조사가 붙은 경우에는 반드시 보조 용언은 띄어 써야 한다.
② 매일같이(조사), 김√선생, 그만두다(동사)
④ 지난주(합성 명사), -할지(‘-르지’는 어미) ▶이번/주, 지난번
▶정답: ③

03. 높임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ㄱ. 할아버지께서 노인정에 가셨습니다.
- ㄴ. 선생님께서는 휴일에는 댁에 계십니다.
- ㄷ. 여러분, 아이들을 자리에 앉혀 주십시오.
- ㄹ. 우리는 할머니를 모시고 산책을 다녀왔다.

- ① ㄱ, ㄴ: 문장의 주체를 높이고 있다.
- ② ㄱ, ㄴ, ㄷ: 듣는 이를 높이고 있다.
- ③ ㄴ, ㄷ: 특수한 어휘를 사용하여 높임을 표현하고 있다.
- ④ ㄷ, ㄹ: 목적어를 높이고 있으므로 객체를 높이는 표현이다.

해설

- ④ ‘ㄱ’은 객체 높임이지만, ‘ㄷ’은 객체 높임이 아니라 ‘주십시오’에서 상대 높임이 사용되었다.
① ‘ㄱ’은 ‘-께서, -시-’, ‘ㄴ’은 ‘-께서, -계시다’에서 주체를 높이고 있다.
② ‘-습니다, -습니다, -십시오’에서 듣는 이를 높이고 있다.
③ ‘댁에 계시다, 모시다’가 높임을 표현하는 특수한 어휘이다.
▶정답: ④

04. 밑줄 친 단어의 품사가 같은 것은?

- ① ㄱ. 모두 제 잘못입니다.
↳ 심판은 규칙을 잘못 적용하여 비난을 받았다.
- ② ㄱ. 집에 도착하는 대로 편지를 쓰다.
↳ 큰 것은 큰 것대로 따로 모아 두다.
- ③ ㄱ. 비교적 교통이 편리한 곳에 사무실이 있다.
↳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비교적 낮은 편이다.
- ④ ㄱ. 이 사과가 맛있게 생겼다.
↳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해설

- ③ '비교적': 부사, 관형사, 명사가 가능하다. ③ '비교적 (교통이) 편리하다, 비교적 낮다'는 조사 없이 용언을 수식하는 경우이므로 모두 부사이다.
- ㉠ 부사: 일정한 수준이나 보통 정도보다 꽤. ㉡ 비교적 쉬운 문제/우리 사무실은 도심에 위치하고 있어 비교적 교통이 편리하다.
- ㉢ 관형사: 다른 것과 견주어서 판단하는. 또는 그런 것. ㉣ 비교적 고찰/비교적 연구
- ㉤ 명사: 다른 것과 견주어서 판단하는. 또는 그런 것. ㉥ 비교적인 관점
- ① 잘못(명사)+조사 / 잘못(부사)+용언
- ② 체언+대로(조사) / 용언+대로(의존 명사)
- ④ 이, 그, 저(대명사)+조사 / 이, 그, 저(관형사)+체언

▶정답: ③

05. 밑줄 친 한자 성어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그는 이번 실패에 굴하지 않고 捲土重來를 꿈꾸고 있다.
- ② 그는 魚魯不辨으로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 ③ 그는 이번 사건에 吾不關焉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 ④ 그의 말이 羊頭狗肉으로 평가받는 것은 걸만 그럴듯해서이다.

해설

- ② 어로불변(魚魯不辨): 어(魚) 자와 노(魯) 자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아주 무식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이렇게 쉬운 문제도 틀리다니 어로불변(魚魯不辨)의 수준이군. ㉢ 목불식정(目不識丁), 숙맥불변(菽麥不辨)
- ① 권토중래(捲土重來): 땅을 말아 일으킬 것 같은 기세로 다시 온다는 뜻으로, 한 번 실패하였으나 힘을 회복하여 다시 쳐들어옴을 이르는 말. 어떤 일에 실패한 뒤에 힘을 가다듬어 다시 그 일에 착수함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 ㉡ 그는 입사 시험에서 낙방한 뒤 권토중래의 마음으로 외국어 학원에 등록했다.
- ③ 오불관연(吾不關焉): 나는 그 일에 상관하지 아니함. ㉡ 완고한 축들은 도대체 청년회란 것이 무엇 말라비틀어진 것이냐고 오불관연의 태도를 취하였다./서희는 본인 스님의 설법을 귀로는 듣되 마음은 오불관연이었다.
- ④ 양두구육(羊頭狗肉): 양의 머리를 걸어 놓고 개고기를 판다는 뜻으로, 겉보기만 그럴듯하게 보이고 속은 변변하지 아니함을 이르는 말. ㉡ T 씨의 마음이 말 그대로의 액면이라면 고마운 마음이라고 하니 할 수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양두구육이 아니냐고 따져볼 형편도 안 되는 것이었다.

▶정답: ②

06.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는 이때 온몸으로, 그리고 마음속으로 절절히 느끼게 되었다. 짐착이 괴로움인 것을. 그렇다. 나는 난초에게 너무 짐념해 버린 것이다. 이 짐착에서 벗어나야겠다고 결심했다. 난을 가꾸면서는 산철에도 나그넷길을 떠나지 못한 채 꿈작을 못 했다. 밖에 불일이 있어 잠시 방을 비울 때면 환기가 되도록 들창문을 열어 놓아야 했

고, 분(盆)을 내놓은 채 나가다가 뒤미처 생각하고는 되돌아와 들여놓고 나간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우리들의 소유 관념이 때로는 우리들의 눈을 멀게 한다. 그래서 자기의 분수까지도 돌볼 새 없이 들뜬다.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 한 번은 빈손으로 돌아갈 것이다. 내 이 욕심마저 버리고 훌훌히 떠나갈 것이다. 하고많은 물량일지라도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다.

크게 버리는 사람만이 크게 얻을 수 있다는 말이 있다. 물건으로 인해 마음을 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한번쯤 생각해 볼 말씀이다. 아무것도 갖지 않을 때 비로소 온 세상을 갖게 된다는 것은 무소유의 역리(逆理) 이니까.

-법정, 무소유-

- ① 역설과 예시를 사용해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 ②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 논증을 뒷받침하고 있다.
- ③ 난초를 의인화하여 소유의 가치를 깨우치고 있다.
- ④ 단호한 어조로 독자의 반성을 촉구하고 있다.

해설

제시문은 법정 스님의 <무소유>이다. 난초를 예로 들어(예시) '크게 버리는 사람이 크게 얻는다, 아무것도 갖지 않을 때 온 세상을 갖는다'에서 역설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주제: 무소유를 통해 깨달은 진정한 삶의 가치

▶정답: ①

07. ㉠에 들어갈 시조로 적절한 것은?

우리말에서 공간적 개념은 흔히 시간적 개념으로 바뀌어 표현되곤 한다. 예컨대 공간 표현인 '뒤'가 시간 표현으로 '나중'을 의미하기도 한다. 한편 문학 작품에서 시간적 개념이 공간적 개념으로 바뀌어 표현되는 경우도 있다. 그 예로 다음 시조를 보자.

㉠

- ① 어제 내 일이야 그럴 줄을 모로드나
이시라 헛더면 가라마는 제 구투여
보내고 그리는 情은 나도 몰라 흐노라
- ② 靑山은 내 뜻이오 綠水는 님의 情이
綠水흘러간들 靑山이야 變홀손가
綠水도 靑山을 못 니저 우리 예어 가는고
- ③ 冬至스들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혀 내어
春風니불 아리 서리서리 너헛다가
어른 님 오신 날 밤이여든 구귀구귀 퍼리라
- ④ 山은 넷 山이로되 물은 넷 물이 안이로다
晝夜에 홀으니 넷 물이 이실손야
人傑도 물과 긋야야 가고 안이 오노미라

해설

③ 시간적 개념인 '춌쑤스뉘 기나긴 밤'을 공간적 개념인 '니불 아릭 너헛다가'로 바꾸어 표현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이육사 <광야> ~끓임없는 광음(光陰)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정답: ③

08. 밑줄 친 단어의 불규칙 활용 유형이 같은 것은?

- ① ㄱ 나뉠이이 누르니 가을이 왔다.
ㄴ 나무가 높아 오르기 힘들다.
② ㄱ 목적지에 이르기는 아직 멀었다.
ㄴ 앞으로 구르기를 잘한다.
③ ㄱ 주먹을 휘두르지 마라.
ㄴ 머리를 짧게 자르다.
④ ㄱ 그를 불운한 천재라 부르다.
ㄴ 색깔이 아주 푸르다.

해설

- ③ '휘두르다(휘둘러)', '자르다(잘라)' 모두 어간이 변하는 '르' 불규칙 용언이다.
① 누르다[黃]: 르 불규칙 / 오르다[壓]: 르 불규칙
오르다(올라): 르 불규칙
② 이르다[至]: 르 불규칙 / 이르다[무, 講]: 르 불규칙
구르다(굴러): 르 불규칙
④ 부르다(불러): 르 불규칙
푸르다[靑]: 르 불규칙

▶정답: ③

09. 다음 글에 나타난 필자의 견해로 볼 수 없는 것은?

서양에서 주인공을 '히어로(hero)', 즉 '영웅'이라고 부른 것은 고대 서사시나 희곡의 소재가 되던 주인공들이 초인간적인 능력을 가진 인물들이었기 때문이다. 신화적 세계관 속에서 영웅들은 신과 밀접한 관계를 맺거나 신의 후손이기도 하였다. 신화와 달리 문학 작품은 인물의 행위를 단일한 것으로 통일시킨다. 영웅들의 초인간적이고 신적인 행위는 차차 문학 작품의 구조에 제한되어 훨씬 인간화되었다. 문학 작품의 통일된 구조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대폭 수정되거나 제거되는 수밖에 없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비극이 '보통보다 우수한 인물'을 모방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문학의 인물이 신화의 영웅이 아닌 보통의 인간임을 지적한 것이다. 극의 주인공은 작품의 통일성을 기하는 데 기여하는 중심적인 인물 이면 된다고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낭만주의 및 역사주의 비평가들은 작중 인물을 실제 인물인 양 따로 떼어 내어, 그의 개인적인 역사를 재구성해 보려고도 하였다. 그들은 영웅이라는 표현 대신 '성격(인물, character)'이라는 개념을 즐겨 썼는데, 이 용어는 지금도 비평계에서 애용되고 있다.

- ① 영웅이라는 말은 고대의 예술적 조건과 자연스럽게 관련된다.
② 신화의 영웅은 문학 작품에 와서 점차 인간화되었다.
③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보통보다 우수한 인물'은 신화적 영웅과 다르다.
④ 역사주의 비평가들은 작중 인물을 역사적 영웅으로 재평가하려고 했다.

해설

- ④ 역사주의 비평가들은 고대의 신화와 달리 작중 인물을 실제 인물인 것처럼 재구성하려고 했다. 그래서 '영웅'이라는 표현 대신 '성격'이라는 개념을 즐겨 썼다. 따라서 역사주의 비평가들이 작중 인물을 역사적 영웅으로 재평가하려고 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 첫 번째 단락, ② 두 번째 단락, ③ 세 번째 단락

▶정답: ④

10. ㉠~㉣에 들어갈 한자어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토론은 어떤 의견이나 제안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 뚜렷한 의견 대립을 가지는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 형태이다. 찬성자와 반대자는 각기 (㉡)를 밝히고, 상대방의 주장을 비판하며, 주장의 정당성과 합리성이 상대방에게 인정될 수 있도록 자기의 주장을 펴 나간다. 토론에서 자기 주장이 옳다는 것을 상대방이 인정하도록 하려면, 상대로 하여금 (㉢)의 여지를 가지지 못하게 해야 한다. 따라서 토론 참가자는 (㉣)에 대한 충분한 자료 수집 및 정보 검토를 통해 자신의 주장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고, 자기 의견을 논리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화법(話法)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 ㉠ ㉡ ㉢ ㉣
① 論議 論據 論駁 論題
② 論議 論制 論據 論搏
③ 論意 論旨 論難 論述
④ 論意 論志 論據 論題

해설

- 제시문의 괄호에는 '논의(論議), 논거(論據), 논박(論駁), 논제(論題)'가 적절하다.
• 논의(論議: 논할 논, 의논할 의): 어떤 문제에 대하여 서로 의견을 내어 토의함. 또는 그런 토의.
• 논거(論據: 논할 논, 근거 거): 어떤 이론이나 논리, 논설 따위의 근거
• 논박(論駁: 논할 논, 논박할 박): 어떤 주장이나 의견에 대하여 그 잘못된 점을 조리 있게 공격하여 말함
• 논제(論題: 논할 논, 제목 제): 논설이나 논문, 토론 따위의 주제나 제목

▶정답: ①

11. 다음을 모두 만족시키는 표어로 적절한 것은?

- 공중도덕 지키기를 홍보한다.
- 대구의 표현 방식을 활용한다.
- 행위의 긍정적 효과를 비유적으로 표현한다.

- ① 신호 위반, 과속 운전 / 모든 것을 알아 갑니다
- ② 아파트를 뒤흔드는 음악 소리 / 이웃들을 괴롭히는 고문 장치
- ③ 노약자에게 양보하는 한 자리 / 당신에게 찾아오는 행복의 문
- ④ 공공 장소에서 실천하는 금연 / 우리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해설

조건에 맞는 글쓰기이다. 우선 대구법이 들어 있는 문장으로는 ②와 ③이다. 그런데 조건에서 '긍정적 효과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은 ③이다.

- ①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하지 못함.
- ② 긍정적 효과가 없음
- ④ 대구, 비유의 표현 방식이 없음

▶정답: ③

12. 다음 한글 맞춤법 제6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ㄷ, ㅌ' 받침 뒤에 종속적 관계를 가진 '-이(-)'나 '-히-'가 올 적에는, 그 'ㄷ, ㅌ'이 'ㅈ, ㅊ'으로 소리 나더라도 'ㄷ, ㅌ'으로 적는다.

- ① 예시로는 '해돋이, 같이'가 있다.
- ② 위 조항은 한글 맞춤법 총칙 중 '어법에 맞게 적는다'는 원리를 따른 것이다.
- ③ 종속적 관계란 체언, 어근, 용언 어간 등에 조사, 접사, 어미 등이 결합하는 관계를 말한다.
- ④ '잔디, 버티다'는 하나의 형태소에서 'ㄷ, ㅌ'과 'ㅣ'가 만난 것으로서 위 조항의 예에 해당된다.

해설

제시문은 구개음화에 대한 설명이다.

- ④ '잔디'와 '버티다'의 'ㅣ' 모음은 하나의 형태소 내에서 일어나고 있으므로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표기 그대로 '잔디 [잔디], 버티다[버티다]'로 발음된다.

▶정답: ④

13. 밑줄 친 부분의 쓰임이 모두 옳은 것은?

- ① ㄱ 일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는 일어나 나갔다.
ㄴ 그는 여전히 들은 체도 하지 않고 앉아 있다.
- ② ㄱ 가을 논의 벼가 한참 무르익고 있었다.
ㄴ 그는 가방을 한참 바라보더니 가 버렸다.
- ③ ㄱ 둘 사이는 친분이 두껍다.

- ㄴ 우리나라의 야구 선수층은 매우 두텁다.
- ④ ㄱ 나이가 들어 머리가 많이 벗겨졌다.
ㄴ 바나나 껍질이 잘 벗어지지 않았다.

해설

① ▶'채': [부사] 어떤 상태나 동작이 다 되거나 이루어졌다고 할 만한 정도에 아직 이르지 못한 상태를 이르는 말. [예]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가 소리를 질렀다.

[의존 명사]: 이미 있는 상태 그대로 있다는 뜻을 나타내는 말. [예] 옷을 입을 채로 물에 들어간다./노루를 산 채로 잡았다.

▶'체(=척)': '그렇듯하게 꾸미는 거짓 태도나 모양'을 뜻하는 의존 명사

- ②, ③, ④는 모두 서로 순서가 바뀌었다.

▶정답: ①

14. 단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바다', '맑다'는 어근이 하나인 단일어이다.
- ② '회덮밥'은 파생어 '덮밥'에 새로운 어근 '회'가 결합된 합성어이다.
- ③ '결눈질'은 합성어 '결눈'에 접미사 '-질'이 결합된 파생어이다.
- ④ '웃음'은 어근 '웃-'에 접미사 '-음'이 붙어 명사가 된 파생어이다.

해설

② '회덮밥'은 어근인 '덮-'에 어근인 '밥'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비통사적 합성어 '덮밥'에 새로운 어근 '회'가 결합한 합성어이다.

▶정답: ②

15. 다음 글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산업 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서게 될 지역 주민들도 그 시설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시설이 자기 고장에 들어서는 것을 받아들여려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내 고장에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공공의 이익을 외면하는 ㉢지역 이기주의에 다름 아니다.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폐기물 처리장 건설을 뒤로 미루면 그로 인한 피해가 결국 ㉣우리 모두에게 돌아온다. 나와 내 이웃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 이기주의를 타파해야 한다.

- ① ㉠은 앞뒤 문장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기 위해 '그러나'로 바꾼다.
- ② ㉡은 주제와 상관없는 내용으므로 문단의 통일성을 위해 삭제한다.
- ③ ㉢은 우리말답지 않은 표현으로 '지역 이기주의이다'로 순화한다.
- ④ ㉣은 주어와 호응하지 않으므로 '우리 모두에게 돌아온다는 것이다'로 고친다.

해설

- ② ㉠은 지역 이기주의는 주제에 해당하므로 삭제하면 안 되고 그대로 두어야 한다.
- ① 앞의 문장과 달리 뒤의 문장에서는 이기적 주민들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역접의 '그러나'가 적절하다.
- ③ '~에 다름 아니다'는 일본어 투 표현이므로 '~이다' 또는 '~와/과 다름없다'로 써야 한다.
- ④ 주어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과 호응하는 서술어는 '돌아온다는 것이다'이다.

▶정답: ②

16.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진에 명산물이 없는 게 아니다.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그것은 안개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밖으로 나오면, 밤사이에 진주해 온 적군들처럼 안개가 무진을 뺨 둘러싸고 있는 것이었다. 무진을 둘러싸고 있는 산들도 안개에 의하여 보이지 않는 먼 곳으로 유배당해 버리고 없었다. 안개는 마치 이승에 한(恨)이 있어서 매일 밤 찾아오는 여귀(女鬼)가 뿜어 내 놓은 입김과 같았다. 해가 떠오르고, 바람이 바다 쪽에서 방향을 바꾸어 불어오기 전에는 사람들의 힘으로써는 그것을 헤쳐 버릴 수가 없었다.

손으로 잡을 수 없으면서도 그것은 뚜렷이 존재했고 사람들을 둘러쌌고 먼 곳에 있는 것으로부터 사람들을 떼어 놓았다. 안개, 무진의 안개, 무진의 아침에 사람들이 만나는 안개, 사람들로 하여금 해를, 바람을 간절히 부르게 하는 무진의 안개, 그것이 무진의 명산물이 아닐 수 있을까!

- 김승옥, 무진기행 -

- ① 소재의 의미를 비유적 표현을 통해 드러낸다.
- ② 무진이라는 지역의 특징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 ③ '나'의 시선으로 전개되는 1인칭 시점의 서술이다.
- ④ 과거 시제를 사용하여 사건을 객관적으로 묘사한다.

해설

- ④ 제시문은 1인칭 주인공인 화자가 자신의 내면세계를 드러내기 위해 과거 시제를 사용한 것이므로 '객관적 묘사'는 부적절하다.
- ① 안개를 '밤사이에 진주해 온 적군들처럼', '여귀가 뿜어 내 놓은 입김과 같았다'라고 비유[적유법]하였다.
- ② 霧津(안개 무, 언덕 진)이라는 지역은 안개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③ 1인칭의 '나'가 지문에 나타나며, '나'의 시선으로 내용을 전개하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소설이다.

▶정답: ④

17. 다음 글의 중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책 없이도 인간은 기억하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표현

한다. 그런데 책과 책 읽기는 인간이 이 능력을 키우고 발전시키는 데 중대한 차이를 가져온다. 책을 읽는 문화와 책을 읽지 않는 문화는 기억, 사유, 상상, 표현의 층위에서 상당히 다른 개인들을 만들어 내고, 상당한 질적 차이를 가진 사회적 주체들을 생산한다. 누구도 맹목적인 책 예찬자가 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간을 더욱 인간적으로 하는 소중한 능력들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책은 결코 희생할 수 없는 매체라는 사실이다. 그 능력의 지속적 발전에 드는 비용은 싸지 않다. 무엇보다도 책 읽기는 손쉬운 일이 아니다. 거기에는 상당량의 정신 에너지가 투입돼야 하고, 훈련이 요구되고, 읽기의 즐거움을 경험하는 정신 습관의 형성이 필요하다.

- ① 인간의 기억과 상상
- ② 독서의 필요성과 어려움
- ③ 맹목적인 책 예찬론의 위험성
- ④ 책 읽기 능력 개발에 드는 비용

해설

제시문에서 필자는 독서(책 읽기)를 통해 기억, 사유, 상상 등을 기를 수 있고, 독서는 인간을 더욱 인간적으로 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책 읽기는 손쉬운 일이 아니므로 훈련이 요구되고, 정신 습관의 형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독서의 필요성과 어려움'이 중심 내용임을 알 수 있다.

▶정답: ②

18. ㉠~㉣에 들어갈 적절한 접속어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역사의 연구는 개별성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 구체적인 과거의 사실 자체에 대해 구명(究明)을 꾀하는 것이 역사학인 것이다. (㉡) 고구려가 한족과 투쟁한 일을 고구려라든가 한족이라든가 하는 구체적인 요소들을 빼 버리고, 단지 "자주적 대제국이 침략자와 투쟁하였다."라고만 진술해 버리는 것은 한국사일 수가 없다. (㉢) 일정한 시대에 활약하던 특정한 인간 집단의 구체적인 활동을 서술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역사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 | | | |
|---------|----|-----|
| ㉠ | ㉡ | ㉢ |
| ① 즉 | 가령 | 요컨대 |
| ② 가령 | 한편 | 역시 |
| ③ 이를테면 | 역시 | 결국 |
| ④ 다시 말해 | 만약 | 그런데 |

해설

- ㉠ 뒤 문장이 앞 문장에 대한 보충 설명이므로 '즉'이 적절하다.
- ㉡ 고구려와 한족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으므로 '가령'이 적절하다.
- ㉢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활동이 역사라고 요약·정리하고 있으므로 '요컨대'가 적절하다.

▶정답: ①

19. 다음 시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마음도 한자리 못 앉아 있는 마음일 때,
친구의 서러운 사랑 이야기를
가을 햇별로나 동무 삼아 따라가면,
어느새 등성이에 이르러 눈물 나고나.

제삿날 큰집에 모이는 불빛도 불빛이지만,
해질녘 울음이 타는 가을 강을 보겠네.

저것 봐, 저것 봐,
네보담도 내보담도
그 기쁜 첫사랑 산골 물소리가 사라지고
그다음 사랑 끝에 생긴 울음까지 녹아나고
이제는 미칠 일 하나로 바다에 다 와 가는
소리 죽은 가을 강을 처음 보겠네.

-박재삼, 울음이 타는 가을 강-

- ① 공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군.
- ② 첫사랑과 관련된 시어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군.
- ③ 대조적 속성을 지닌 소재를 통해 정서를 부각하고 있군.
- ④ 전통적 어조를 사용해 예스러운 정감을 살리고 있군.

해설

- ② 첫사랑과 관련된 시어는 '산골 물소리'이며 첫사랑의 환희와 설렘을 형상화한 이미지이다. 그러나 첫사랑이 이제 '사라졌다'고 표현했을 뿐 이와 관련된 시어를 반복하거나 운율을 형성한 것은 아니다. 다만, '불빛도 불빛이지만, 저것 봐, 네보담도 내 보담도'와 같은 시어의 반복은 운율감을 형성하는 동시에 서러움의 정서를 부각하는 효과가 있다.
- ① '해 질 녘 타는 강(시각적 심상)', '울음(청각)'으로 표현했으므로 공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했다.
- ③ '불'(햇별, 불빛, 타는)과 '물'(강, 눈물, 울음)의 대조적 속성을 통해 슬픔, 한(恨), 서러움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 ④ '-고나, -것네' 등 판소리나 민요의 전통적 종결 어미를 사용해서 예스러운 정감을 살리고 있다.

▶정답: ②

20.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길동이 “형님께서는 염려하지 마시고, 내일 소제(小弟)를 잡아 보내시되, 장교 중에 부모와 처자 없는 자를 가리어 소제를 호송하시면 좋은 묘책이 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감사가 그 뜻을 알고자 하나 길동이 대답을 아니 하니, 감사가 그 생각을 알지 못해도 호송원을 그 말과 같이 뽑아 길동을 호송해 한양으로 올려 보냈다.

조정에서 길동이 잡혀 온다는 말을 듣고 훈련도감의

포수 수백을 남대문에 매복시키고는, “길동이 문 안에 들어오거든 일시에 총을 쏘아 잡으라.” 하고 명했다.

이때에 길동이 풍우같이 잡혀 오지만 어찌 그 기미를 모르리오. 동작 나무를 건너며 ‘비 우(雨)’ 자 셋을 써 공중에 날리고 왔다. 길동이 남대문 안에 드니 좌우의 포수가 일시에 총을 쏘았지만 총구에 물이 가득하여 할 수 없이 계획을 이루지 못했다.

길동이 대궐 문 밖에 다다라 자기를 잡아온 장교를 돌아보면서 말하기를, “너희는 날 호송하여 이곳까지 왔으니 문죄 당해 죽지는 아니하리라.” 하고, 수레에서 내려 천천히 걸어갔다. 오군영(五軍營)의 기병들이 말을 달려 길동을 쫓려 했으나 말을 아무리 채찍질해 문들 길동의 축지하는 법을 어찌 당하랴. 성 안의 모든 백성들이 그 신기한 수단을 헤아릴 수 없더라.

- ① 서술자가 길동의 장면 묘사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 ② 호송하는 장교를 배려하는 길동의 면모가 드러나고 있다.
- ③ 비현실적 요소를 도입하여 길동의 남다름을 나타내고 있다.
- ④ 길동이 수레에서 탈출하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해설

- ④ 길동이 수레에서 탈출한 모습은 나타나지만, ‘천천히 걸어갔다’고 했으므로 비유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다.
- ① ‘어찌 그 기미를 모르리오’, ‘어찌 당하랴’ 등은 서술자의 개입에 의한 편집자적 논평이다.
- ② 마지막 단락에서 자기를 잡아온 장교가 문죄 당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
- ③ 도술을 부리는 방면, 축지법을 쓰는 장면 등은 길동의 비범함을 드러내는 전기적(傳奇的)[비현실적]인 요소이다.

▶정답: ④

受驗生 여러분의合格을 眞心으로 祈願합니다.

-김정진 선생 제공-

